

목 차

1994년 ~ 2024년

(염리동성당 30년사)

“일어나 가자”

“선교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제1부] 염리동 성당 30년의 발자취

1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작, 주님의 뜻대로	2
2 드디어 본당이 건립되다 (1994년 - 2001년)	4
3 새 성전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다! (2002년 - 2014년)	16
4 도약을 위한 성전 리모델링 (2015년 - 2019년)	21
5 새 공동체의 완성, 30년을 향한 여정 (2020년 - 2024년)	27

[제2부] 염리동 성당 현황

1 염리동성당 현황	33
2 역대 주임 사제 현황	35
3 본당 출신 성직자	36
4 후보 성인 이야기	37
5 사목평의회	40
6 주요 연혁	41

[제1부] 염리동 성당 30년의 발자취

1.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작, 주님의 뜻대로...

2. 드디어 본당이 건립되다! (1994년 ~ 2001년)

3. 새 성전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다! (2002년 ~ 2014년)

4. 도약을 위한 성전 리모델링! (2015년 ~ 2019년)

5. 새 공동체의 완성, 30년을 향한 여정 (2020년 ~ 2024년)

하느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일들이 항상 그렇듯이

우리 염리동 성당의 탄생도

사제나 수도자, 교우들의 바람이나 계획, 준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미처 알지 못하는 시기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불현듯 저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작, 주님의 뜻대로...

우리 염리동 성당의 출발은 공덕동 성당의 이전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덕동 성당이 가진 열악한 본당 환경을 고려하여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당시에 비교적 저렴했던 현재 염리동 성당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당시 해당 부지는 일반 도로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고, 인근에 서울여자중고등학교, 동도중학교 등의 학교가 위치해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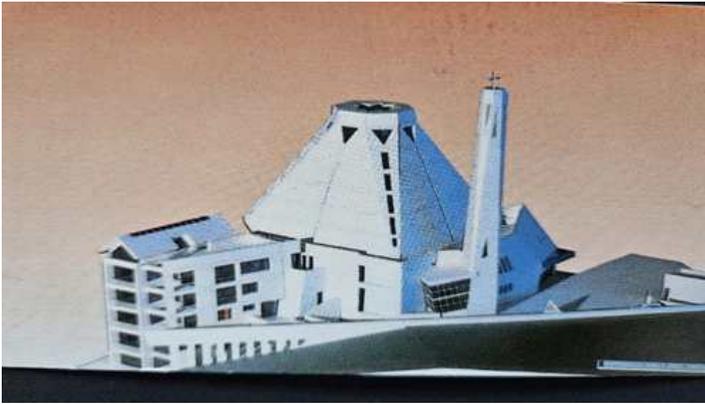
다만, 대원군이 거주하던 곳(아소정)이 인근에 있어 터가 좋다는 평이 있었고, 당시 서울 소재 유명 중고등학교 등이 강남 일대로 이전하는 사례와, 공덕동 일대가 도로가 확장되고 아파트촌 건설이 계획되는 등 개발계획이 인구에 회자되고 일부 가시화되고 있어 교세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공덕동 성당 주임신부(김종수 신부)는 평당 약 130만원으로 현 염리동 성당 부지를 매입하였고, 전문업체인 문화건축에 공덕동 성당 이전 후 새 성전의 설계를 의뢰하였으며, 돔 형태의 아름다운 새 성전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본당 이전의 전제조건이던 기존 공덕동 성당 부지의 매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예상 건축비용이 최초 책정한 예산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공덕동 성당의 이전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구와 공덕동 성당 관계자들은 본당을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덕동 본당은 그대로 두고, 소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성당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4년 2월 염리동 성당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본래 공덕동 성당의 이전을 위해 마련해 둔 대지에 새 성전의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 공덕동 성당 이전을 위한 새 성전 조감도 >

2. 드디어 본당이 건립되다! (1994년 ~ 2001년)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새로 설립하는 염리동 성당의 관할 구역은 기존의 아현동 성당, 공덕동 성당 및 신수동 성당의 일부 구역을 염리동 성당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본 세 곳의 본당에서 염리동 성당으로 편입이 결정된 교우들은 기대 반, 두려움 반의 심정으로 염리동 성당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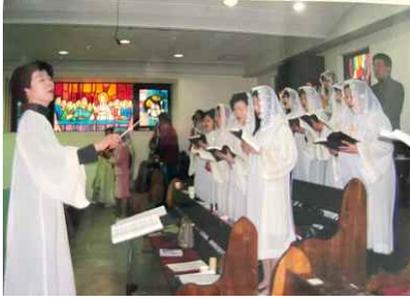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익숙한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본당을 설립하고 그 구성원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하였지만, 염리동 신앙 공동체를 자신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간다는 희망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립 당시 염리동 성당의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염리동 : 27번지 전역, 36번지 13, 17~19, 20~23, 28~29, 32~38, 52~58, 60~63, 76~78 <19, 11, 43, 45, 40번지~180번지>
- ‡ 대흥동 : 서강로와 대흥로 교차점에서 대흥로를 기준으로 승문중학교 방향으로 승문중학교 까지
- ‡ 공덕동 : 럭키빌딩에서 현대 아파트 길을 따라 좌측 지역

1994년 2월 22일(화) 이찬홍 야고보 신부(1994.2 ~ 1999.2)가 염리동 성당 초대 주임사제로 부임하면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 성당의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들이 하나 둘씩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당 첫 미사는 신부님이 부임하시고 약 20여일 이 경과된 1994년 3월 13일에 현재 성당 위치에서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에서 봉헌되었다. 본당의 첫 주보는 3월 27일 발행되었고 사목협의회도 구성되었습니다. 4월에는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반주자 및 성가대 지휘자를 모집하는 등 제대로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본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능들을 비교적 신속하게 갖추어 나갔습니다. 5월부터 신부님의 가정방문이 시작되고, 각 구역을 책임질 임원진도 구성되었으며, 대



< 초기 마니피캣 성가대의 활동 모습 >



< 가족과 함께 한 주일학교 여름캠프 >

‡ 수영복 차림의 신부님 모습이 당시 본당 분위기를 대변해 준다.

“지난해(95년) 우리는 본당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구역공동체의 체계를 잡기 위해 반장의 지위 향상과 구역장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었고, 남성 세대주 모임도 각 구역 안에서 서서히 태동되어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구역 공동체의 체계화를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 1996년 사목계획서 본당 사목목표 중 -

본당 체제가 조금씩 갖추어짐에 따라 교우들은 사회사목 활동에도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1995년 1월에는 일회용품 소비를 줄여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 보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교우들이 직접 만든 장바구니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 다양한 사회사목 활동의 시작 >

성전 건립을 위한 노력들.

하지만 설립초기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성전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임사제와 교우들은 성전 건립 부지에 설치된 가건물 형식의 임시성전이나 인근 일성여고 등의 시설을 빌려 미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 김수환 추기경과 초대 사목평의회 위원들 >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미사 장소를 성당 건축부지에 임시로 설치한 가건물에서 인근 일성여고 강당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동시에 타 본당 교우들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일산동 성당을 시작으로 타 본당 방문도 시작되었는데, 이후 성산동 성당, 마천동 성당, 연희동 성당, 흥계동 성당, 수색 성당, 명수대 성당, 아현동 성당, 중곡동성당, 서대문 성당 교우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염리동 성당은 성전 건립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매월 첫째 주 미사를 '은인들을 위한 미사'로 봉헌하고, 미사 후 묵주기도 1단을 바쳤습니다.



< 본당 건축이 이루어지던 시기의 모습 >
 † 본당 뒤쪽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현 서울 창업허브)의 모습이 보인다.

1995년 5월 27일에 건축 중인 성전 지하에 소성전을 마련, 그곳에서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임시 소성전에 설치할 접이식 의자 마련을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하였고 짧은 시간 내에 완료하였는데 이는 새 성전에 대한 염리동 교우들의 간절한 열망을 잘 보여주는 일화라 하겠습니다.

염리동 성당 설립 초기 성전 건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본당 성전 건립 과정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염리동 성당의 성전 건립은 1994년 10월 착공 미사를 봉헌한 이후 2001년 6월 성전봉헌 미사에 이르기까지 무려 6년 6개월의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건립 초기 교우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립 공사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성전 건물의 근간이 되는 구조물에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부실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약 9개월 간의 구조물 보강공사가 이루어졌고, 기존 공사업체가 공사를 포기하여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재정이 충분치 못해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

난관에 봉착해 있던 성전건립공사는 전종훈 시몬 신부가 2대 주임사제로 부임하면서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1999.3.5.~2001.10.4.). 교구의 지원을 받아 재정문제를



< 일성여고에서의 미사 모습 >



< 임시 소 성전에 마련된 성모동산 >

해결하고 공사를 본당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2000년 11월에 준공 승인을 받아 새 성전에서 11월 26일 첫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1년 6월 10일에 정진석 대주교 주례로 새 성전 축성 및 봉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94. 2.22	· 초대 주임사제 이찬홍 야고보 신부 부임 · 현 성전부지에 임시 성당을 마련
1994. 3.13	· 창설 미사 봉헌
1994. 4. 3	· 사목협의회 구성
1994. 9. 4	·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수녀 부임, 전교 활동 시작
1994.10. 3	· 김수환 추기경을 모시고 착공 미사 봉헌(일성여고 강당)
1994.10.16	· (주)조흥공영과 신축 공사계약 체결(설계감리: 건축문화 김영섭)
1994.10.23	· 본당 성전건립위원회 발족
1995. 5.27	· 임시 새 성전에서 미사 시작
1995.10.15	· 성전 건립을 위한 바자회 개최(서울여중)
1995.10.20	· 성당 구조물에서 부실공사 발견 (구조물 균열, 철근 노출, 콘크리트 부실 타설 등)
1995.11.10	· 교구 첫 사목 방문(김수환 추기경)
1996. 4.20	·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구조 진단 의뢰(부실 판정)
1997. 3.	· 부실 판정에 따른 보강 공사 진행
1997.12.	· (주) 조흥공영 공사 포기, (주) 지영공영 공사 착수
1998.12.	· 재정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
1999. 3. 5	· 제2대 주임사제 전종훈 시몬 부임
2000. 3.	· 공사 재개(본당 직영체제로 현장 사무실 운영)
2000.11.26	· 새 성전 첫 미사 봉헌(제2지구장 장홍선 신부 주재)
2000.11.28	· 성당 건축물 준공 검사 승인
2001. 6.10	· 새 성전 축성 및 봉헌(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주례)

<염리동 성당 공사 진행 상황 요약>

성전 건립 과정을 겪으면서 얻게 된 교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인해 과도하게 공사비를 아끼고자 하는 노력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공사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관련 분야의 지식이 있는 교우들이 성전건립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였다고는 하나 성전 건립은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과정이므로 교구 건축위원회를 포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전 건립은 교우들의 관심과 헌신을 통해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앙생활이나 교우들 간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느 경우에도 아름다운 성전의 건립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번 축복식을 갖는 염리동 본당은 주임 신부와 신자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결정체이다. 여기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은 은인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가톨릭신문, 2001.6.10. 기사 중 발췌 -

< 모든 교우의 노력의 열매인 성전 봉헌, 2001.6.10 >

염리동 성당 전 신자들의 노력과 많은 은인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고, 더 안정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한 우여곡절을 겪은 후 완성된 새 보금자리에서 모든 교우들은 하느님 품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들이 보기에 좋은 성전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전을 만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 신축 당시 본당 성전의 이모저모 >



< 1996년과 2001년 건진 성사 모습 >

3. 새 성전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다(2002년 ~ 2014년)

그래도 희망은 우리들 ...

- 성가정봉헌문 기도 시작
- 사목 방문: 염수정 추기경, 김윤희 주교, 구요비 읍 주교,
- 교구장 성가정 축복장 수여식

성전이 봉헌된 이후 우리 염리동 성당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전건립의 과정에서 교우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은 한층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3대 염리동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최종윤 토마스 신부는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사목 지침을 수립하고 성전 건립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생길 수 있는 교우들 간의 의견 대립, 냉담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사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2001.10.5.~2004.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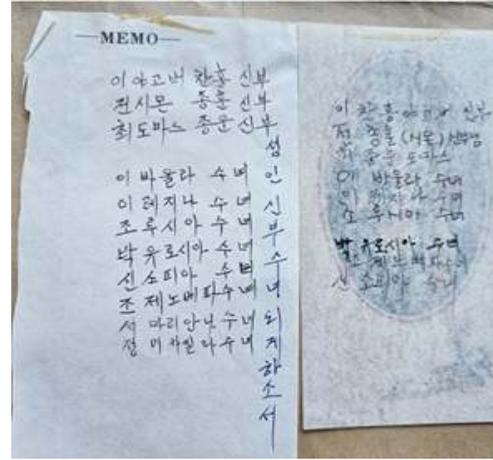
사제의 사목지침을 공유하고 본당 신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염리동 성당 홈페이지를 개설(<http://www.stfamily.or.kr>)하고, 2003년 1월에는 업 그레이트하였습니다.



< 2002. 12. 29 혼인객신식, 교황대사 모란디니 주교와 함께 >

성당 활동 및 신앙생활에 소원해지기 쉬운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매월 첫 번째 주일에 영어로 드리는 미사를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참부모 교육 실시, 혼인 갱신식 등을 시행하여 교회의 초석이 되는 성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되는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매주 본당 주보에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게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우들의 믿음과 헌신, 성직자들의 사목활동은 하나둘씩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염리동 성당 주일학교 학생 중 사제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등 알찬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김도훈 라파엘과 이진혁 프란치스코 학생은 가톨릭대학교 성신학부(대신학교) 사제직을 지망하였고, 이후 본당 사제의 지도와 교우들의 기도 및 지원으로 사제직의 꿈을 이루는 길에 한걸음씩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 염리동 성당 설립 이후 성전건립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에 대한 염리동 교우들의 고마움의 표현.

✦ 메모지에 손글씨로 적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의 성함과 영적 성장을 바라는 기원은 어느 예술작품보다 진솔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 본당 출신 김도훈 라파엘 학사와 이진혁 프란치스코 학사 >

상대적으로 활동이 적었던 남성 교우들을 대상으로 남성모임(사도회)를 발족하고 활성화를 시도하는 등 성전 봉헌 후 2년이 경과한 2003년은 한층 성숙한 교우들의 믿음에 더해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본당 활동이 집중되었습니다.

성전건립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본당 교우들과 신부님, 수녀님들 간에 믿음의 연결고리가 생겨났으며, 이는 염리동 성당의 이후 발전과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구역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를 구역미사 주간으로 운영하였고, 마르코복음을 시작으로 각 복음서별로 8주에서 10주간의 일정으로 복음서 읽기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전 건립으로 인해 발생한 교구 및 사목공제회 부채 상환을 위한 교우들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1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던 성전 건립을 위한 2차 현금 납부를 2003년부터 재개하였으며, 부채상환과 구역 활성화를 위한 알뜰바자회, 의류판매바자회, 성가정바자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은 '선교하는 가족 공동체의 해'라는 슬로건 하에 교우들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차원의 복음공동체로서의 성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일피정,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성령세미나, 본당 성화의 날 전신자 일일피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4대 염리동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허근 이나시오 신부는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구차원의 사회봉사 활동 및 인근 구역 성당과의 친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2004.9.21.~2009.8.31.) 아울러 2005년부터는 본당 설립 후 10년이 지나는 것을 계기로 본당 운영 안정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

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룹 성서반 모집, 구역미사 봉헌, 매월 마지막 주 가정주일 선포, 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정미사(토요일 주일미사) 봉헌, 주일 교중 미사 후 본당 차원의 점심 나눔 행사 등 성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한발 더 나아가 교구 차원에서 진행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06년 서울대교구 성체대회를 맞이하여 염리동 교우들은 헌신봉헌서를 봉헌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천 사항에 전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여름 신앙학교도 모든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테마로 하여 평창 생래마을(2007년), 영월자연마을(2009년)에서 진행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였고 2008년에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태안지역 자원봉사 활동에도 본당 차원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참고] 2006년 서울대교구 성체대회 실천사항

- | | |
|---------------------------|------------------------|
| 1. 주일, 평일 미사 봉헌과 성체조배 | 2. 생명문화 알기와 참여 |
| 3. 국내 영유아 입양 | 4. 전 신자 사후 장기기증 등록증 갖기 |
| 5.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 | |

2009년에는 청소년 주일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물건과 음식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593,310원) 전액을 가톨릭사회복지회에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 10월에는 본당과 공덕동 성당, 대흥동 성당이 함께 하는 '천주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신자들의 하나 됨을 느끼고, 상호 협력을 통한 발전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당 출신인 한기철 실바노 수사가 부제 서품(성 바로오 수도회, 2007년)을 받는 은총을 받아 더 한층 성숙한 본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기철 실바노 수사는 2008년 9월 4일 사제 서품을 받고 동년 9월 7일에 첫 미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 ~ 3))

본당 주위의 재건축 등으로 인해 인근 성당과의 관할 지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에 본당 관할 구역의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본당 관할이던 염리동 일

부 지역과 자이APT 지역이 대흥동 성당 관할로 이관되었고, 삼성 4차 아파트 지역과 GS자이 2차 아파트 지역이 본당 관할로 이관되었으며, 7구역과 77구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당 5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황철안 알로이시오 신부님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신자로서의 자세 확립과 본당 관할구역의 복음화를 제고를 우선시하는 사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2009.9.1.~2014.9.1.).

본당 주보에 고해성사 방법, 올바른 미사준비 및 마무리, 올바른 영성체 준비 및 방법 등 너무나 익숙하여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을 게재하여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천주교 예수노상전교회를 초빙하여 레지오 단원을 대상으로 가두 선교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두 선교를 실시하였으며, 본당 주보에 본당 신자수와 복음화율을 게재하는 등 염리동 성당 교우들의 선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본당 출신으로 가톨릭대학 성신학부에 진학했던 김도훈 라파엘 학사는 교우들의 기도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2011년 2월에 부제서품을 받았으며, 2012년 2월에 사제서품을 받고 2월 12일에 새 사제로서 첫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본당 출신 김도훈 라파엘 신부 부제 서품, 2011. 2. 7>

4. 도약을 위한 성전 리모델링 (2015년 ~ 2019년)

그래도 늘 우리 곁에 희망이, 주님 감사합니다.

2014년 염리동성당의 제6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노봉진 프란치스코 신부는 염리동 성당이 규모와 역량을 갖춘 본당으로서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2014.9.2.~2019.8.26.).

당시 공덕역을 중심으로 한 염리동 일대는 다수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과 청년 주택의 건설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관할 구역 내 주민 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교세 확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당의 경우 핵심 교통요충지인 공덕역 인근에서 본당으로 진입하는 경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세 확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새로 부임한 주임신부는 본당 교우 중 건축, 법률, 세무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교우들로 '성당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염리동 성당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공덕역 방향에서 서울 창업허브 건물을 거쳐 본당으로 진입하는 경로를 새로이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본당 진입로를 통해 고지대인 염리동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으로 마포구청과 약정을 하고, 이를 위해 성전의 주 출입구를 기존 본당 건물의 우측으로 변경하고 성전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발전되었던 누수, 기둥 뒤틀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층의 활용도 제고 등을 목표로 성전 리모델링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전 봉헌 후 채 1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이라 많은 분들의 걱정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우들의 걱정은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과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는 두 가지 문제로 집중되었습니다.

우선 본당 설립 후 약 6년간에 걸쳐 성전 건립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비록 리모델링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대한 교우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립을 위해 교구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교구 차입금 8억원 중 2014년 8월말 현재 부채 잔액 311,963,900원)에서 별다른 준비없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또다시 교구에서 비용을 차입해야 하고, 교우들도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 리모델링을 위한 사제와 교우들의 노력도 효율적인 기금 마련 방안과 성공적인 공사를 위한 신자들의 굳건한 믿음의 확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선 본당 교우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임신부와 함께 하는 청년 복음 묵상', '아름다운 성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면담 성사 실시, '가족기도 봉헌문' 작성, '본당 승합차량 운행', '성서백주간 모임 활성화(청년반, 형제반 모집)', '좋은 아버지 모임' 결성, '본당 리모델링을 위한 고리기도' 시작, '연도대회 개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아빠들의 친교모임으로 시작한 '조아모'(좋은 아버지들의 모임)는 친교 모임의 한계를 뛰어넘어 명실상부한 봉사단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조아모는 당시 염리동 성당의 관할 구역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필요한 낡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분기별 2가구 내외)를 선정하여 도배, 건물수선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본당 행사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주일 차량봉사 등으로 활동 폭을 넓히게 됩니다.



< 평화신문에 게재된 조아모 회원들, 2017년 >



< 조아모회원 봉사활동: 주거환경 개선 >

이러한 봉사활동이 알려져 2015년말에는 서울대학교 본당 사회복지공모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주변 지역이 재개발이 완료되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상이 줄어들어 활동이 폭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조아모 활동은 그동안 많은 분의 관심과 도움을 통해 성장해 온 우리 염리동 성당이 이제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는 계기가 된 의미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신앙교육도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수련회 중심의 여름 캠프에서 벗어나 성지순례 등 보다 신앙교육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아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성가정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성전 리모델링 기간 중 불가피하게 주일학교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주일학교 학생 수가 감소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초등부 신앙 학교**
 - 일시 : 7월 29일(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대상 : 유치부 ~ 초등학교 1학년
 - 장소 : 성당 • 참가비 : 없음
-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캠프**

2017년 초등부 여름캠프는 순교자들의 신앙과 역사를 함께 느끼는 시간으로 도보 성지순례를 계획 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켜낸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깊이 느끼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초등부 주일학교 2~6학년
 - 일 시 : 7월 31일(월) - 8월 2일(수) (2박 3일)
 - 장 소 : 충청남도 내포지역
(신리 - 합덕 - 솔뫼 - 한티 - 해미)
 - 참가비 : 75,000원 (워터파크입장료 포함)
- **중,고등부 주일학교 여름캠프**
 - 일 시 : 8월 4일(금) - 5일(토)
 - 장 소 : 염리동 성당 + 수영장
 - 참가비 : 25,000원



< 2017년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캠프 >

‡ 초등부 학생들과 조아모 회원들이 충청남도 함덕을 출발해 성지순례 실시중인 모습

성전 리모델링 기금마련을 위한 교우들의 노력도 하나둘씩 추진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성잔, 성합, 향로, 촛대 등의 채구 봉헌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 성전 리모델링 공사 착공 시까지 교리실 리모델링을 위한 바자회 개최, 음향시설 개축을 위한 봉헌금 모금, 본당 승합차량 마련을 위한 기부, 리모델링 기금 마련을 위한 물품판 9999매, 식당 냉장고 봉헌 접수, 리모델링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개최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p>● 리모델링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p> <p>● 일시 : 10월 9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미사 : 10월 9일(주일) 오전 10시 30분</p> <p>● 장소 : 금곡초등학교 운동장 ‡ 당일은 본당에 미사가 없습니다.</p>	
<p>< 리모델링 기금 마련 바자회 > ‡ 물품 판매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서울공덕초등학교)</p>	

또한 교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성전 재건축을 위한 신림금 봉헌 약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염리동성당의 리모델링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지구 성당 지원금 2억원을 포함하여 총 14개 본당의 교우들이 약 11.5억원의 신림을 책정해 주셨고 실제 95% 이상의 신림금을 봉헌해 주었습니다. 염리동 성당의 리모델링에 도움을 주신 성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p>< 염리동 성당 리모델링에 도움을 주신 14개 성당 ></p> <p style="text-align: right;">가나다 순</p> <p>노원성당, 논현2동성당, 대흥동성당, 무악재성당, 상암동성당, 성산2동성당, 신수동성당, 아현성당, 압구정동성당, 압구정1동성당, 양천성당, 중림동성당, 청담동성당, 홍은동성당</p> |
|-----------------------------------------------------------------------------------------------------------------------------------------------------------------------------------------------|

이와 같은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2018년 1월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2018년 4월에서야 철거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주민공청회,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 교구 인준, 관할구청의 착공 허가 등을 거쳐 동년 10월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철거공사가 시작된 이후 성전 리모델링 기간 중 평일미사는 성당 마당에 텐트를 쳐서 마련한 임시성전에서, 주일미사는 성

당 인근 일성여고 강당, 공덕동 성당 등 도움을 받아 봉헌하였습니다.

및 성전 봉헌 이후 타성에 젖어 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성당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NO. 2014- 신자보관용

성전 재건축 신립금 봉헌 약정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로마 8:28)

염리동 성당의 성전 재건축을 준비하게 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작은 모용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성전의 핵심들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손에 놀랄기만 한데"로 고백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저의 작은 기도와 정성을 아래와 같이 봉헌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4년 월 일

구역, 반	이름, 세례명
약정액 원	약정 기간 ①11년 ②1년 ③2년

☐ 천주교 염리동 성가성 성당

----- 월 일 신 -----

NO. 2014- 본당보관용

성전 재건축 신립금 봉헌 약정서

저의 작은 기도와 정성을 아래와 같이 봉헌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4년 월 일

구역, 반	이름, 세례명
약정액 원	약정 기간 ①11년 ②1년 ③2년

☐ 천주교 염리동 성가성 성당

☞ 염리동 성당의 모든 교우들은 각자 사정에 맞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성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 당초 15억원을 목표로 시작된 염리동 신자들의 신립금 봉헌은 2차례의 성전 리모델링 기금 및 성물신립 등을 통해 모금액이 약 11.3억원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성전 지하에 마련된 소성전(현 지하 2층 강당) 공사가 완료되어 해당 소성전에서 미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본당발전위원회 설립 이후 약 4년간의 준비기간과 1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드디어 2019년 8월 25일 대성전 입당 축하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리모델링 사업은 약 5년간이라는 긴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라,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모든 교우들이 하나되어 힘을 모으고 주위 본당 및 교우들의 도움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사 공지

- 4월 9일(월)부터 본공사준비와 상황에 인해서 4월 2일(월)부터 4월 6일(금)까지 미사가 없습니다.
- 주일 미사 안내 (4월 7일(토)부터 7월 1일(일)까지)

요일	미사 시간	장 소
토	오후 5시	일성여고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오후 6시 (청소년, 청년)	본당텐트에서 봉헌

● 미사 시간과 장소 변경 (9월 1일부터)

요일	미사 시간	장 소
토	오후 6시(어린이미사)	공덕동성당
주일	오전 6시, 오전 10시 (교중미사)	
	오후 6시(청소년, 청년)	본당 찬막성전
평 일 (화 ~ 금)	오전 6시(저녁미사 없음)	본당 찬막성전



< 리모델링 기간 중 미사 실시 공지 및 염리동 성당 마당에 마련한 임시 텐트 성전 >

☞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지만 초대교회를 경험하는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우들도 많았다.

본당 교우들은 여름날의 폭풍 찢는 더위와 겨울날의 매서운 추위, 여러 가지 활동상의 제약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당 설립

5. 새 공동체의 완성, 30년을 향한 여정! (2020년 ~ 2024년)

더 나은 믿음을 그리며, 늘 주님과 함께...

-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 시노드 모임 실시
- 자부회 설립
- 염리동 성당 노숙인 지원사업
- 마포실버케어센터 미사 봉헌 및 봉사

2019년 염리동성당의 제7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황인환 베네딕토 신부는 염리동 본당의 가족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성당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 물적, 제도적 관리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2019.8.27.~현재). 또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부모들의 봉사, 어르신들의 미소가 어우러지는 성가정성당의 참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적극 행동하였습니다.

2019년 8월 대성전 봉헌 미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검토 결과 구청의 사용승인을 얻기까지는 건축법상 공사관계자 외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성당 마당에 설치된 천막에서 계속하여 미사를 봉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후 11월부터 대흥동 성당의 도움으로 대흥동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또한 성전 리모델링 관련 수입 및 지출현황을 정리하여 전 신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8일에 마침내 구청의 정식 사용승인을 득하고 새롭게 단장한 대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다만 동년 8월 중에 이미 대성전 입당 축하미사를 봉헌한 까닭에 별도의 행사는 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만을 모아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2019년 말일 기준으로 성전 리모델링을 위한 신임을 마감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성당발전기금 형태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당 및 타 본당 교우들이 마음을 보탠 결과 신임 약정총액은 2,238,249,655원이었고, 2,184,929,655원을 납부하여 실제 납부율은 97.6%에 이르렀습니다.

성전 리모델링 공사는 이후 약 5개월의 보강 및 잔여 마감 공사를 하고 2020년 5월 '염리동성당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완료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염수정 추기경이 본당을 방문하여 성전 증축을 축하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사제와 수도자들의 노고와 본당 교우들의 헌신을 치하해 주셨습니다.



† “염리동 본당 신부 이하 모든 교우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성전을 정성되이 단장하고 봉헌함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날마다 거룩한 찬미가 분향같이 올라가고 모든 교우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염리동성당은 성전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이후 사목평의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전 단체장이 참여하는 전체모임을 개최하는 등 성당 운영의 정상화와 새 출발을 위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2020년 초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미사를 포함한 본당 대면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성당 활동의 제한은 이후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2021년 11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미사 참여인원 제한이 완화될 때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에도 교우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노력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인 '기뻐하고 즐거워 하여라'에 대한 설명을 주보에 게재하여 함께 나누기 시작했고, 견진교리반을 개설하여 견진성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간추린 사회교리' 내용을 주보에 실고 매주 강론을 통해 나눔으로써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져 한국외방선교원,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등의 선교 단체를 지속적으로 후원하였고, 요셉의원, 가

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한 백신나눔 운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사업분과의 활동을 강화하여 염리동 성당 관할 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과일 등의 음식과 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평가를 받아 2022년 '본당 사회복지 공모사업'으로 독거 어르신을 위한 과일나눔, 냉방기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서울대학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이후 염리동성당의 사회사목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당 사랑역량 제고 : 사랑실천 기본교육 실시 ✦ 본당 관할 소외 이웃과 독거 어르신을 위한 나눔활동 : 명절나눔, 부활/성탄 나눔 ✦ 노숙인 지원사업 : 패딩 등 방한용품 나눔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당 관할 소외 이웃과 독거 어르신을 위한 나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 나눔, 부활/성탄 기쁨 나눔, 냉방기 지원, '하느님 사랑 과일배달' 사업 ✦ 사랑실천 활동 : 생명사랑 실천(현혈 장기기증), 하느님의 창조 지구 환경보호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당 관할 소외이웃과 독거 어르신을 위한 나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 나눔, 부활/성탄 기쁨 나눔, 사랑의 고리 활동 ✦ 환경 교육 ✦ 가톨릭 시설 지원 : 가난한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병원인 요셉의원 후원 ✦ 마포실버케어센터 미사 봉사, 식사보조 봉사



< 사랑의 고리 활동 모습 >



< 생명 나눔 활동 (현혈 및 장기 기증 서약 등) >

성가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가을 주일학교 학생들의 아버지로 이루어진 '자부회'를 설립하여, 아버지들이 주일학교 활동 지원 및 미사 지도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주일학교 교사들의 노력에 더해 주일학교 학생 수의 증가와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 자부회 설립 미사, 2022.9 >

✦ 이후 자부회 멤버들은 주일학교 활동에서 '삼촌'으로 불리며 적극 참여하게 된다.

2022년 8월부터 동년 10월까지 기간 중 세계평화와 일치를 위한 백만 어린이 묵주기도 캠페인을 시작하여 10월 15일에 ANC한국지부 이사장이신 유경춘 주교님과 함께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지향으로 정하였습니다.



< 2021년 사랑실천 기본교육 모습 및 노숙인 지원사업 안내 현수막 >



<백만 어린이 목주기도 캠페인 모습 >

“2022년 10월 15일 서울 염리동성당(주임 황인환 베네딕토 신부)에서 열린 ‘100만 어린이의 목주기도’ 캠페인에서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유경춘 주교와 함께 목주기도를 바치고 있다.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돕기(ACN) 한국지부는 이날 40여 명의 어린이와 부모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00만 어린이의 목주기도’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를 위해 목주기도 5단을 봉헌했다. ACN은 매년 10월 18일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을 ‘100만 어린이의 목주기도의 날’로 정하고 전 세계에서 기도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22년 10월 23일자 가톨릭신문 보도 중 일부 발췌)

2023년 4월부터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마다 ‘마포 실버케어센터를 찾아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센터 측의 요청으로 천주교 신자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미사를 본당 밖에서 시작하였는데, 신앙에 목말라 하는 어르신들을 향한 봉사자의 따뜻한 마음,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에 대한 본당 신부님의 배려, 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재단 측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하나가 되어 이룬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봉사활동 참여, 문화행사 개최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본당 주임신부님이 서울시마포실버케어센터 성체를 분배하는 모습 >

[제2부] 염리동 성당 현황

* 모든 현황은 2024년 2월 18일 기준

성당 주요 현황

† 본당 안내

본당명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리동 성당		
주보성인	성가정	설립일자	1994.2.22
주소	(우편번호 0414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1가길 28 (염리동)		
전화	02-716-3511	팩스	02-716-3512

† 전례 및 성사

주일	주일 오전11시(교중), 오후6시(청소년, 청년) 토요일 오후 4시(어린이), 토요일 오후 6시
평일	화요일/목요일 오후 7시 수요일/금요일 오전 10시 (월요일 미사없음)

† 사제 및 수도자

주임사제	황인환 베네딕토		
원장수녀	박 비아	전교수녀	정 라파엘라

‡ 관할 구역

3. 관할구역



구분	관할 구역
1구역	· 성당주변 주택가, 상록, 마포자이3차아파트 등
2구역	· 염리동, 대흥동 주택가, 마포자이2차아파트
3구역	· 공덕삼성3차아파트, 파크팰리스
4구역	· 공덕현대아파트, 마포 현대아파트
5구역	· 공덕삼성1차아파트, 롯데캐슬아파트, SK리더스뷰아파트, 주택가
6구역	· 공덕삼성4차아파트
7구역	· 염리 삼성아파트
8구역	·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공덕 삼성5차아파트
9구역	· 마포 프레스티지자이아파트
10구역	· 구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신자

역대 주임사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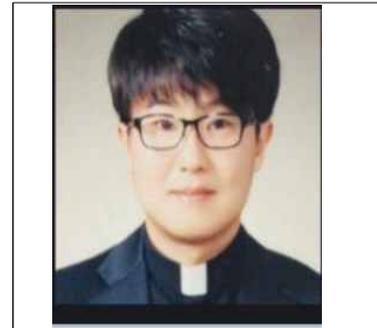
제1대	이찬홍 야고보 신부 서품 1987년 재임 1994 2월 22일 - 1999년 3월 4일
제2대	전중훈 시몬 신부 서품 1990년 재임 1999년 3월 5일 - 2001년 10월 4일
제3대	최중운 토마스 신부 서품 1992년 재임 2001년 10월 5일 - 2004년 9월 20일
제4대	허근 이나시오 신부 서품 1991년 재임 2004년 9월 21일 - 2009년 8월 31일
제5대	황철안 알로이시오 신부 서품 1988년 재임 2009년 9월 1일 - 2014년 9월 1일
제6대	노봉진 프란치스코 신부 서품 1999년 재임 2014년 9월 2일 - 2019년 8월 26일

본당 출신 성직자

‡ 신부님



한기철 실바노 신부
서품일 2008년 9월 4일
성 바오로 수도회



김도훈 라파엘 신부
서품일 2012년 2월 10일

‡ 수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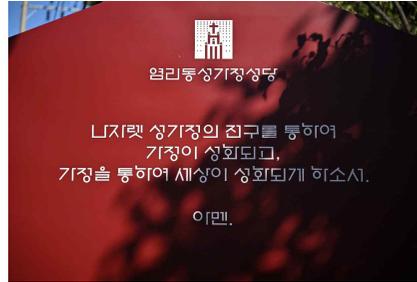
김미애 모니카 수녀
입회 1996년 3월 19일
중신선서 2007년 2월 5일
한국순교복지수녀회

주보성인 이야기

‡ 염리동 성당 주보성인 이야기



(염리동 성당 성가정 상)



본당 설립 초기부터 교우들을 지켜주던 성가정상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견디며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현재의 성모 동산 앞 화단에 자리를 잡았다.

- ¶ 염리동 성당의 주보(主保)성인은 '예수, 마리아와 요셉의 성가정'입니다.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 양부인 요셉으로 구성된 나자렛의 성가정은 모든 가톨릭 신자 가정의 모범으로 여겨져 오래전부터 신자들의 신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 가톨릭교회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1921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주님 성탄 대축일의 8일 축제에 해당하는 12월 30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 한국 천주교회는 주님 성탄 대축일 다음 주일(12월 마지막 주일)을 성가정 축일로 지내고 있으며, 성가정 축일에 해당하는 주일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 7일간을 가정성화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 ¶ 성가정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보금자리이고, 친교로 사랑을 이루는 가정교회이며, 참된 인성교육의 신앙학교입니다.
- ¶ 30년 전 아주 작은 공동체로 시작한 염리동 성당은 교우 한명 한명을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에게 세상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런 점에서 염리동 성당의 주보성인인 성가정은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힘이 되어 주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염리동 성당 십자고상 (삼위일체 십자가)



< 2001년 봉헌되었던 황동의 십자고상 >



< 2019년 리모델링 이후 십자고상 >

- ¶ 염리동 성당의 십자고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는 삼위일체 십자고상입니다. 삼위일체의 믿음을 구현하는 십자고상입니다.
- ¶ 제 2대 주임사제인 전종훈 시몬 신부가 새 성전에 사용할 십자고상으로 제안하였고, 이에 이상복 로마나 자매가 기증하여 2001년 6월 10일 본당 축성 미사 때 봉헌되었습니다.
- ¶ 본당의 삼위일체 십자고상은 프랑스의 '빈첸시오수녀원 본원'에 있는 작품을 본 따 한국의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에서 황동으로 제작하여 성전에 봉헌하여 2018년까지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 ¶ 2018년 10월 본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최초 기증한 황동의 십자고상은 그 무게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현재는 FRP 재질로 변경하였습니다.
- ¶ 이후 초기의 황동 십자고상은 본당에서 보관하다가 2024년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녹여 동일한 모습의 작은 형태의 탁상형 십자고상으로 제작하여 각 가정에 선물로 나누어서 간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염리동 성당 로고



† 본당 로고는 서울대교구의 기본로고를 활용해서 하단에 염리동 성당을 명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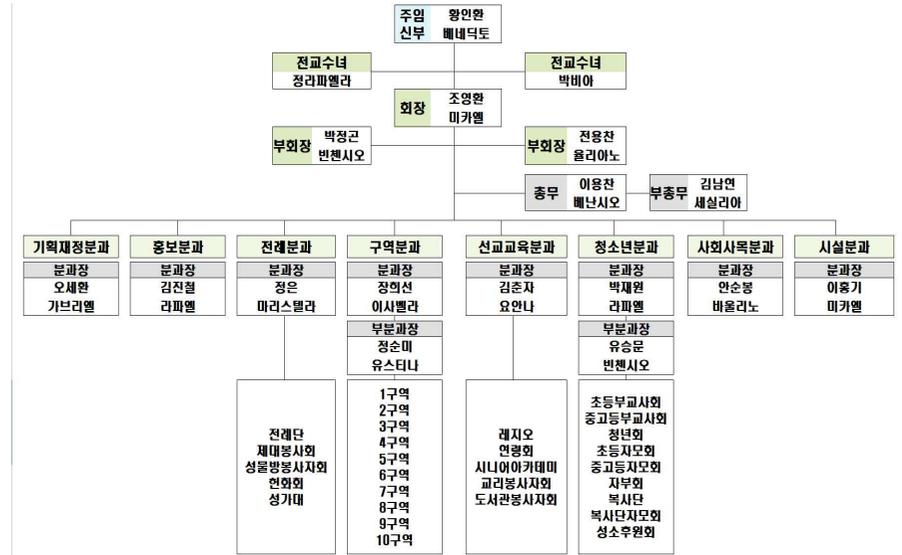
염리동성당

† 아기를 중심으로 성모마리아와 요셉이 손을 맞잡고 있는 사랑과 평화의 성가정을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도안 : 제 2 대 사목회장(1995.12-200.12) 김명섭 요아킴 형제 지인 (제작자 뜻에 따라 익명 처리)

사목 평의회

‡ 사목평의회 조직도



‡ 역대 사목회장

구 분	이 름	재 임 기 간
1대	김태중 안드레아	1994. ~ 1995. 11.
2대	김명섭 요아킴	1995. 12. ~ 2000. 12.
3대	김춘식 요셉	2001. 6. ~ 2003. 2
4대	김진규 자카리아	2003. 3. ~ 2006. 11.
5대	박영수 미카엘	2006. 12. ~ 2011. 6.
6대	심상훈 아오스딩	2013. 1. ~ 2014. 1.
7대	이정국 프란치스코	2017. 1. ~ 2018.
8대	김용환 안셀모	2021. 1. ~ 2023. 1.
9대	조영환 미카엘	2023. 1. ~ 현재

주요 연혁

연 도	주요 활동
1994	02. 22 초대 주임사제 이찬홍 야고보 신부 부임 03. 13 첫 미사 봉헌, 사목협의회 구성 03. 27 첫 주보 발행 04. 03 첫 세례식 08. 02 전 신자 캠프(강원도 연곡 해수욕장) 09. 04 성 도미니코 선교수도회 수녀(정 로사리아, 윤 스킴라스티카) 부임 10. 03 착공 미사 봉헌 (일성여고 강당 / 김수환 추기경 집전) 10. 16 (주)조흥공영과 신축공사 계약 10. 23 사랑하울 어머니 Cu 창단 12. 25 세례식
1995	05. 27 임시 새 성전에서 미사 시작 07. 01 전 신자 북한산에서 야외 미사 10. 15 성전 건립을 위한 바자회(서울여중) 10. 20 성당 구조물 부실 공사 발견 11. 10 사목 방문 (김수환 추기경) 12. 16 세례식
1996	04. 20 성당 구조진단 의뢰(한국건설안전기술원) ⇒ 부실 판정 08. 01 전 신자 캠프(강경 나바위 성지) 09. 01 강 크리스티나 수녀 부임 09. 15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 참석 11. 21 견진성사(강우일 주교 집전) 12. 21 세례식

연 도	주요 활동
1997	01. 05 김 로사, 서 이사벨 수녀 부임 02. 02 첫 영성체 및 어린이 세례식 03. 01 보강 공사 진행 05. 09 ME 모임 (12회) 08. 01 전 신자 가족 캠프(- 8.4, 3박 4일, 충남 대천) 10. 26 제1회 성가정 체육대회(송문고) 12. 01 (주)지영공영으로 공사업체 변경 12. 13 세례식
1998	01. 09 성시간(매월 금요일) 01. 25 첫 영성체 08. 01 전 신자 가족 캠프(- 8.4, 3박 4일, 강원도 판대) 10. 18 염리동과 공덕동 친선 체육대회 12. 01 재정 부족으로 공사 중단 12. 13 세례식
1999	02. 25 조 루시아 수녀 부임 03. 05 제2대 주임사제 전종훈 신부 부임 08. 06 전 신자 가족 캠프(- 8.8, 2박 3일, 강원도 판대) 09. 19 세례식 10. 20 매주 수요일 전 신자 신앙교육 12. 24 세례식

연 도	주요 활동
2000	01. 23 이 바올라 수녀 부임
	04. 23 세례식
	09. 01 중고등부 공부방 운영
	10. 28 첫 영성체
	11. 26 새 성전에서 첫 미사 봉헌(제2지구장 장홍선 신부 집전)
	11. 28 건축물 준공 승인
	12. 25 세례식
2001	02. 18 신 소피아 수녀 부임
	03. 02 중고등부 공부방 운영
	04. 15 세례식
	05. 25 성가정 노인대학 설립
	06. 10 성전 봉헌식 및 봉헌미사(정진석 대주교님 집전)
	09. 08 첫 영성체
	09. 29 견진성사
	10. 05 제3대 주임사제 최종운 토마스 신부 부임
	10. 21 나눔의 바자회 개최(성당)
12. 25 세례식	
2002	02. 01 세례식
	02. 18 매주 수요일 전 신자 신앙교육
	03. 02 세례식
	03. 31 홈페이지 개설(http://www.stfamily.or.kr)

연 도	주요 활동
2002	04. 28 전 신자 야외미사(가톨릭 대학교)
	08. 15 세례식
	09. 29 전 신자 성지순례(강화 갑곶돈대)
	12. 29 혼인 갱신식
2003	01. 28 조 제노베파 수녀 부임
	02. 23 본당 설립 9주년 한마음 잔치
	08. 01 강원도 동해시 해군성당 봉사자 캠프
	08. 15 세례식
	08. 16 첫 영성체
	09. 05 노인대학 학생 및 봉사자 제주도 여행
12. 24 세례식	
2004	02. 19 본당 관할구역(염리동 일부, LG 자이 아파트) 대흥동으로 이관
	02. 22 본당 설립 10주년 행사
	03. 01 정 라파엘라 수녀 부임
	03. 07 사목 방문(안경렬 문시놀 신부)
	06. 13 세례식
	09. 21 제4대 주임사제 허근 이냐시오 신부 부임
	10. 24 견진성사(안경렬 문시놀 신부 집전)
	11. 20 첫 영성체
	12. 26 세례식

연 도	주요 활동
2005	03. 01 박 요안나 수녀 부임
	07. 27 전 신자 가족캠프(-29, 2박 3일, 임진강 캠핑장)
	08. 15 세례식
	08. 21 첫 영성체
	09. 23 순교자의 밤
2006	02. 26 가정주일 제정
	04. 15 부활 계란 콘테스트
	04. 16 세례식
	08. 20 첫 영성체
	09. 28 본당 재정 점검(교구 행정지원과)
	10. 15 전 신자 야외미사(강화도 함허동천)
12. 24 세례식, 세대별 성탄 선물(케익) 나눔	
2007	02. 23 성서 백주간 1기 수료식
	02. 26 김 아나스타시아 수녀 부임
	03. 01 오 데레사 수녀 부임
	05. 14 노인대학 땅끝마을 여행
	05. 26 견진성사(염수정 주교 집전)
	09. 06 공덕동 관할구역(삼성4차 아파트) 염리동으로 이관
	10. 14 염리, 공덕, 대흥 합동 체육대회(서울여고)
	12. 24 세대별 성탄 선물(케익) 나눔
2008	02. 24 전 신자 사순피정(Fr 박정우)
	03. 04 7구역(염리삼성아파트), 77구역(구역 외) 신설 ⇒ 8개 구역 22개 반
	03. 29 성서 백주간 2기 수료식

연 도	주요 활동
2008	04. 11 CCTV 9대 설치(내부 6대, 외부 3대)
	04. 20 세례식
	05. 25 첫 영성체
	06. 20 본당 재정 점검 확인(교구 행정지원과)
	09. 04 본당 출신 첫 사제 수품(한기철 비오 - 성바오르 수도회)
2009	09. 07 본당 출신 첫 사제 첫 미사
	09. 28 전 신자 성지순례(해미)
	01. 21 김 헬레나 수녀 부임
2009	02. 05 성서 백주간 3기 수료식(15명)
	02. 16 하 스텔라 수녀 부임
	02. 22 본당 설립 15주년
	04. 22 성모병원 출장 건강 강좌(뇌졸중)
	05. 13 성모병원 무료 이동 진료(내과, 안과, 재활의학과)
	05. 14 노인대학 안동 하회마을 여행(학생 및 봉사자)
	06. 14 첫 영성체
	08. 15 세례식
	09. 01 제5대 주임사제 황철안 알로이시오 신부 부임
	09. 12 셋별 Pr. 창단(어린이 6명)
	11. 04 매주 수요일 가정 방문 및 반 소공동체 미사 시작
	12. 12 강 루실라 수녀 부임
2010	02. 22 본당 설립 16주년
	03. 03 매주 수요일 가정 방문 및 반 소공동체 미사 시작
	03. 04 사순 특강(-25, 민들레 선교교육)

연 도	주요 활동
2010	04. 04 세례식
	05. 23 견진성사(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06. 06 첫 영성체
	06. 27 사목위원 임명장 수여식
	08. 15 세례식
	10. 10 전 신자 성지순례(문경 여우목 성지)
	10. 27 구역별 가두 선교
	12. 25 세례식
2011	02. 07 김도훈 라파엘 부제 수품
	02. 15 장 카타리나 수녀 부임
	02. 22 본당 설립 17주년
	04. 24 세례식
	07. 31 첫 영성체
	08. 15 세례식
2012	02. 10 김도훈 라파엘 신부 수품
	02. 12 김도훈 라파엘 신부 첫 미사
	02. 22 본당 설립 18주년
	03. 13 본당 재정 점검(교구 행정지원과)
	04. 08 세례식
	05. 06 교구장 성가정 축복장 수여식
	05. 27 견진성사(안경렬 토마스데아퀴노 몬시뇰 신부)
	07. 01 첫 영성체
	08. 15 세례식

연 도	주요 활동
2012	09. 17 여성구역 제주도 여행(-19, 2박 3일)
	10. 14 전 신자 야외미사 및 체육대회(한강 시민공원)
	12. 25 세례식
2013	01. 20 사목위원 임명장 수여식
	02. 22 본당 설립 19주년
	06. 11 노인대학 제주도 여행(-13, 2박 3일)
	06. 15 첫 영성체
	08. 15 주임 사제 황철안 알로이시오 신부 은경축일 감사 미사
	09. 29 전 신자 야외 미사 및 체육대회(한강시민공원)
12. 29 세례식	
2014	02. 23 본당 설립 20주년 감사 미사(전 신자 점심 나눔, 기념타올 배부)
	04. 20 세례식
	06. 29 첫 영성체
	08. 15 세례식
	08. 16 시복미사 참석(교황님 접전)
	09. 02 제6대 주임사제 노봉진 프란치스코 신부 부임
	09. 14 주임사제 환영 미사
	10. 02 성 시간 시작
	10. 25 사목위원, 단체장 피정(-26. 1박 2일, 부천 은혜의 집)
12. 21 세례식	
2015	04. 26 영명축일 축하미사 시작(매월 마지막 주일)
	05. 03 효도 감사 미사
	05. 17 임산부를 위한 미사

연 도	주요 활동
2015	08. 16 세례식
	09. 13 바자회(교리실 리모델링 기금 모금)
	10. 25 성지순례(충남 청양 다락골성지)
2016	02. 01 대흥동 관할구역(GS자이 2차 아파트) 염리동으로 이관
	03. 13 본당 승합차량 운행 시작(좋은 아버지 모임 활동)
	05. 01 '자비의 희년' 환경보호 활동 및 야외미사
	05. 08 효도 감사 미사
	08. 03 성전 재건축을 위한 신립금 약정 봉헌 시작
	10. 09 리모델링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11. 01 다미아노 카페 오픈
2017	04. 23 염리동 성당 체육대회
	05. 07 효도 감사 미사
	06. 28 서 엘리사벳 수녀 부임
	07. 31 초등부 여름캠프 도보 성지순례
	08. 13 세례식
	11. 25 연도대회
	11. 26 첫 영성체
	11. 27 하 스텔라 수녀 부임
	12. 04 본당 리모델링 공사 승인
	12. 09 리모델링 기금 마련 물품 판매 시작
2018	02. 02 사목위원·단체장·구역장 워크샵(명동 전진상 회관)
	04. 02 철거 공사 시작
	04. 07 미사장소 변경(주일 : 일성여고 / 평일 : 천막)

연 도	주요 활동
2018	07. 14 초등부 은총시장
	07. 28 초·중고등부 여름 캠프(경기도 양주 신희 레저타운)
	08. 18 신립모금 시작(-12.15 / 대흥·상암·성산2동·홍은·종림·무악재·노원 등)
	08. 19 주민공청회 개최
	12. 08 성물 봉헌 신립 시작
2019	12. 23 소성전 입당 미사(구요비 읍 주교 집전)
	01. 19 신립모금(-6.29 / 아현·압구정1·신수·양천·압구정·논현2·청담동)
	02. 12 윤 스콜라스티카 수녀 부임
	02. 12 묵주기도회 결성
	02. 14 성서 40주간 시작
	05. 28 성모의 밤
	08. 25 세례식
	08. 25 대성전 입당 축하 미사 및 잔치
	08. 27 제7대 주임 사제 황인환 베네딕토 신부 부임
	11. 05 미사장소 변경(주일·평일 : 대흥동성당)
	12. 06 본당 사용 승인
	12. 19 대림 특강
2020	01. 25 사목위원 임명장 수여식
	01. 29 백 수산나 수녀 부임
	07. 28 사목방문(구요비 읍 주교, 김찬희 세례자 요한 2 지구장)
2021	01. 03 사목위원 임명장 수여식
	04. 17 세례식
	04. 26 박 비아 수녀 부임

연 도	주요 활동
2021	05. 16 염수정 추기경 방문
	06. 06 첫 영성체
	06. 09 정문 표시 설치
	08. 15 세례식
	10. 17 김운회 주교 방문
	11. 26 교패 제작
2022	01. 09 사목위원 임명장 수여식
	02. 01 신년 하례식
	03. 05 시노드 모임 실시(-31)
	04. 09 성당 대청소 실시
	05. 07 초등부 은총 잔치
	05. 16 전입교우 환영식 재개(격월로 진행)
	06. 17 사목회 워크샵(-18, 1박 2일, 고난 예수회 명상의 집, 우이동)
	07. 10 전 신자 잔치(코로나 극복 및 신부님 축일 축하)
	07. 23 남성 레지오 창단
	08. 06 어린이 여름 캠프(-7, 1박 2일, 성당 내)
	09. 26 레지오 야외 행사(풍수원 성당)
	10. 15 100만 어린이 묵주기도(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방문)
	10. 19 자부회 창립 미사
	10. 21 총구역 야유회(홍천) / 시니어 아카데미 야유회
	11. 13 중고등부 견진성사(가재울 성당)
	11. 27 사목총회 실시
12. 09 시니어 종강 학예회	

연 도	주요 활동
2022	12. 11 견진성사(구요비 읍 주교 집전)
	12. 24 어린이 성탄 예술제
	12. 25 세례식
2023	01. 08 사목위원 임명장 수여식
	02. 05 2023년 척사대회
	02. 26 전입교우 환영식(23년 1차 / 22.12월-23.1월)
	03. 19 정 라파엘라 수녀 부임
	04. 16 서울대학교 35기 아버지학교 개설(본당, -5월14일, 5회, 40명)
	04. 27 마포실버케어센터 첫 미사 봉헌(14:30)
	04. 28 3구역 미사(20:00시)
	05. 05 사랑하올 어머니 Cu. 야외행사(충북 베티 성지)
	05. 10 7구역 미사(20:00시)
	05. 11 생태 특강(생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
	05. 11 생태 특강(기후 위기와 생태계 위기에 대처하는 신앙인, 5.18)
	05. 12 시니어 아카데미 야외 행사(철원군 순담계곡 주상절리길)
	05. 20 마니파킷 성가대 일일 피정(당고개 성지)
	05. 28 전입교우 환영식(23년 2차 / 23.2월-4월)
	06. 07 4구역 미사(20:00시)
	06. 28 1구역 미사(20:00시)
07. 05 5구역 미사(20:00시)	
07. 27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 신앙학교(-29, 성당 내외)	
08. 02 중고등부 주일학교 여름 캠프(하남 스타필드)	
08. 26 청년 캠프('오늘은 이렇게 좋은 날', -27, 강화군 일대)	
08. 27 전입교우 환영식(23년 3차 / 23.5월-7월)	

연 도	주요 활동
2023	09. 13 성소후원회 성지순례(충북 음성군 감곡 매곡 순교성지)
	09. 16 청년회 서소문 나들이('가을밤에 위로', 서소문 역사공원)
	10. 06 시니어 아카데미 & 연령회 합동 성지 순례(미리내 성지)
	10. 18 2구역 미사(19:30)
	10. 21 레지오 마리에 전 단원 교육(박준양 세나투스 지도신부)
	11. 15 8구역 미사(19:30)
	11. 19 노숙인 지원 사업 전달(패딩 55개와 기타 의류 & 200만원)
	11. 26 24년 사목총회
	12. 02 레지오 마리에 연차 총 친목회(친목의 밤, 미사 후)
	12. 03 전입교우 환영식(23년 4차 / 23.8월-10월)
	12. 13 6구역 미사(19:30) ※ 전 구역 미사 종료
	12. 16 성탄 「사랑 나눔」 활동(-17, 28 가구)
	12. 25 세례식(12명) 및 첫 영성체(1명) 봉헌